

탈시설화 과연 이뤄져야 하는걸까?

사회복지학과 202211447이준서

1. 서론

최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탈 시설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례로 2021년 6월 22일 포항시청 앞에서 장애인 탈 시설화의 대한 반대 시위가 이루어졌었다. 시위를 행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었으며 이들 모두 장애인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 기사 기준 전국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이며 시설에 입소중인 장애인은 2만693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보호자들은 후에 일어날 상황이 막막하여 시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시위를 하는 내내 하루만 함께 지내봐라 시설이 없어지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줄수 있느냐와 같은 이런 의견들을 표출하며 시위를 하였다. 실제로 이들은 직장에 출근할 때 장애인을 시설에 보호를 맡기고 출근을 한다.보호자들은 이를 크게 걱정한다. 자신이 직접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지 또한 식사와 같이 생활에 관련된 것을 제때 챙겨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이 있다면 차라리 자신이 아닌 신뢰가 가는 시설에 보호를 해두면 마음이 놓이고 할 일을 해쳐나갈수 있을 것이다.

2.본론

그렇다면 탈시설화를 반대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본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장애인에 부모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출근을 하였을 때 생기는 부담감이 크다. 크게 두가지 이유로 나뉘는데 우선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예시로 청각 장애인이나 지체 장애인과 같이 시설이나 보청기나 목발과 같은 보조 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일반 가정보다 금전적인 부담감이 클 수 있다. 물론 나라나 관련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복지사업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경우 제한된 연도와 전액 무료가 아닌 일부금액을 지불 해야하기에 지불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일수 있다. 이런 금액을 지불하기위해 돈을 번다. 하지만 장애인은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며 보호자는 돈을번다는 방법이 장애인과 보호자가 생활해나가는 안정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시설을 없애버린다면 점차 안정적인 생활권이 보장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수 있다.

2-1본론

(장애인에 안전권이 보장되어야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로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체 장애나 자폐를 가진 장애인에 행동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드는 경우나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호자가 바로 옆에서 보호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 지금까지는 시설에서 보호하며 일과를 함께 생활했기에 돌발상황이 생긴다 해도 대처를 하기 쉬웠다.

그러나 시설에서의 생활이 막히게 된다면 앞서 말했듯이 돌발적인 상황으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2-2본론

(장애인에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장애인에 인권과 관련된 이유가 있다 UN장애인 인권선언 19조에서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 받지 아니한다’에 근거한다면 장애인들이 자기 스스로 시설이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탈시설화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이 생긴다. 또한 만약에 탈시설화가 진행되어 장애인이 자립해서 시설을 나가더라도 일부 인원에게 보조금을 뺏기는 피해 사례라던가 나이가 들어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도움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시설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로는 시설은 장애인들이 단체 공공생활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혼자가 아닌 다함께 생활하는 시설이라는 점이 후에 사회로 나가기 전에 공공체 생활을 배우는 준비 단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애인 특수 학교도 존재 하지만 학교는 다니기엔 연령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기관에 경우는 사회로 나가지 않은 성인도 거주하여 생활 할 수 있어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이 어우러져 단체 생활에 기본이나 질서를 배울 수 있다.

2-3본론

(장애인에 보호자가 겪는 어려움도 해결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알아본 이유로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하면 좋은점을 말했었다면 이번에는 장애인에 보호자 즉, 가족,부모님에 입장에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보겠다. 2019년 서울특집 신문에 실린 기사로 **간병 살인**이라는 말로 지체 장애인에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살**하였다는 하나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오랜 돌봄으로 간병자들의 정서를 피폐하게 하고 극도의 우울감으로 소진되면서 살인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사에 보도되었다. 이 기사의 부모에 **심리 부검**을 전문가가 하였을 때 오랜 돌봄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지속되는 빈곤으로 정신건강이 점차 피폐 해지면서 자살을 생각하였으나 자신들이 죽고 홀로 남은 아이가 힘들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여 차라리 자식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함으로써 처해진 힘든 상황을 끊어내기 위함으로 심리부검 되었다. 여기서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심리, 정서 행동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자살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을 전문가가 아닌 보호자가 돌보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쉬운일이 아니다. 24시간 함께하는 것은 어찌면 누군가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앞서 말한 **간병 살인**과 같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생긴다.

2-4본론

(장애인들이 탈시설화를 원치 않는 이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였다면 장애인들은 왜 시설에

서 나가 생활을 하기를 꺼려하는걸까? 한번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2년 4월 13일에 열린 jtbc ‘썰전라이브’ 토론에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장애인이 더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당시 이준석 대표는 2020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시설에서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3.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9.2%로 확인되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더 높은 결과로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왜 나가는 것을 꺼려할까? 그 이유로는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21.9%), ‘경제적 자립 자신이 없음’(14.7%), ‘가족이 이곳에 있기를 원해서(9.7%)’, ‘함께 살 가족이 없거나 찾을 수가 없어서’(4.8%)와 같이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대부분에 이유는 자발적이지 않거나 자립능력이 스스로 부족 하다 생각하여 차라리 시설에 있는 것이 생활권이 보장되고 가족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설에서 생활 한다는 의견을 표현하였다. 장애인들 대부분이 시설화를 선택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가족에게 부담감을 주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시설에서의 활을 선택한다. 이에 뒷받침 하는 사례로는 2021년8월7일 경북장애인부모회 김천시지부에서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탈시설화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현재 탈시설화 찬성측이 주장하는 유럽의 대형장애인 시설에 반박과 **탈시설지원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탈시설화지원법이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의 동참을 위해 탈시설 지원과 점진적인 시설 축소,폐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하지만 현재 탈시설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없다. 왜냐하면 탈시설은 자원이 충분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가 충분하다고 여겨질때야 말로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그러나 현재 사회는 국가에서는 자원부족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장애인들이 시설을 더 선호해서 시설을 벗어나기 싫은거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탈시설이 이루어 진다해도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에 보호자는 물론 장애인 본인이 우선적으로 시설에서 나오는것에 부담이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장애인에 대다수가 가족에게 부담감을 주기 싫어서라고 말하였다. 장애인은 탈시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보는 것으로도 스스로가 가족에게 부담감을 주어 시설에서 나오기를 반대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다.

3.결론

시설에서의 생활과 탈시설을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장애인에게 무작정 시설에서 나오나 생활하게 강요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장애인은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앞서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와 해결 방안은 국가와 정책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보호자들은 시설과 시설 밖에서의 생활이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 하는것에 일관성 있게 일상이 보장되어야 장애인들이 다양한 삶과 사회로 나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국가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 시설에서의 생활을 돕는 장애인 복지 전문가를 더욱 양성하고 전문가들에 전문성을 좀 더 인정해 주어야 한다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무 준비도 되지 않고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는 탈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시설에서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 되도록 탈시설화의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도움자료: "차라리 내가 죽겠다"...전국 장애인 부모들 '탈시설화' 반대 확산(2021)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자립 및 재활지원 | 장애인 | 복지 | 의정부시 분야별정보 홈페이지

- <https://naver.me/GX0pVR7B>

발달장애인지녀의 부모 자살, 심리부검 필요하다

- <https://naver.me/5cA1mo7H>

장애인 탈시설화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찬반 의견 분분

- <https://naver.me/58HUDBoQ>

시설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원치 않는 진짜 이유 / 정다혜

- <https://naver.me/GSgN0KZu>

"장애인 '탈시설화' 반대...현실 반영하라" 부모연대 공식 출범

- <https://naver.me/5T3HIW82>